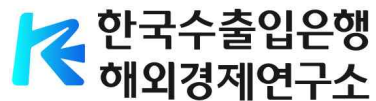


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4. 4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9
V. 종합의견	11



I. 일반개황

면적	277천 km ²	G D P	941억 달러 (2013년)
인구	15.78 백만 명 (2013년)	1 인 당 GDP	5,968 달러 (2013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US Dollar
대외정책	경제중심 실리외교	환율(달러당)	1.00 (2013년)

- 에콰도르는 남미 대륙 태평양 연안 북단 적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, 1809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후 1830년 공화국을 수립함. 전반적으로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나, 지방 인디언 풍속 역시 강하게 남아 있음.
- 에콰도르는 석유수출국기구(OPEC) 회원국으로 남미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, 경제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임.
- 안데스공동체(CAN)의 회원국으로 남미공동시장(MERCOSUR) 가입을 추진하는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 또한 EU와도 FTA를 추진 중임.
- 인근국인 페루와 아마존 유역 영유권 다툼으로 국경분쟁이 발생해 왔으나, 1998년 평화협정을 통해 국경선을 확정하고, 2011년에는 해양 경계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함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분	2010	2011	2012	2013 ^e	2014 ^f
경제성장률	3.53	7.79	5.14	4.24	4.16
재정수지 / GDP	-1.30	0.03	-0.93	-4.01	-4.00
소비자물가상승률	3.55	4.48	5.10	2.73	2.85

자료: IMF.

□ 정유시설 가동중지 등으로 4.16%의 경제성장률 전망

- 에콰도르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, 보조금 지급을 통한 내수 진작, 원유 수출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.
- 생산기반 확충, 빈곤감축을 위한 인프라, 복지 등 공공투자의 확대로, 최근 GDP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%까지 확대됨.
- 2013년에는 에콰도르 최대 정유시설인 에스메랄다스(Esmeraldas)공장의 가동중지,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4.24%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.
- 2014년에는 광업법 개정에 따른 광산개발 확대가 예상되나, 에스메랄다스 공장 보수작업으로 인한 가동중지 지속 등으로 4.16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.

□ 물가안정화 정책으로 2%대의 안정적 물가 유지

- 에콰도르는 2000년 달러공용화 제도 채택 이후 100%에 육박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되고 있음.
- 2013년에는 식료품 가격통제, 연료 보조금 정책 등 정부의 물가안정화 정책과 양호한 기후조건에 따른 농업생산 증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.73%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.
- 2014년에는 에콰도르 정부의 물가안정화 정책 지속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.85%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.

□ 대규모 공공투자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4%대 전망

- 에콰도르는 대규모 공공투자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 호황에 따른 관련 세수 확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함.
- 2013년에는 정부지출의 약 40%를 차지하는 공무원의 임금 상승(8.9%), 연료 수요증가에 따른 연료보조금 부담 증가, 대선 관련 재정지출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.01%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.
- 2014년에는 아마존 지역 내 유전과 석회석 개발 지원, 대규모 도로, 수력 발전소 건설 등의 공공투자가 계획되어 있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4% 대 초반을 유지할 전망이다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석유 의존적인 경제구조와 취약한 제조업 기반

- 에콰도르는 석유산업이 GDP의 15%, 총 수출의 50%, 재정수입의 25%를 차지하는 등 석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계경기 및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함.
- 한편, 2012년 기준 에콰도르의 제조업은 GDP의 12.3%, 총수출의 20%를 차지하나, 대부분 가공식품, 직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제조업 기반이 취약함.

□ 달러 공용화 채택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수출경쟁력 우려

- 에콰도르 정부는 3~5%대의 안정된 소비자물가상승률 유지와 수출입 관련 환위험 차단 등을 위해 2000년 달러 공용화를 채택함.
- 그러나 달러공용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, 국내 통화량은 해외 자본 유출입과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화 대출 등에 의존하고 있음.
-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본격화되는 경우 에콰도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 외부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풍부한 석유 매장량과 구리, 금, 은 등의 광물자원 보유

- 에콰도르는 석유개발기구(OPEC) 회원국으로 2013년 기준 82.4억 배럴의 석유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에너지 자원 부국임. 남미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, 브라질 다음으로 높은 매장량을 보유함.
- 생산량의 경우 2012년 기준 평균 51만 배럴/일로 남미 국가 중 5번째로 높으며 확인매장량이 10억 배럴인 ITT(Ishpingo, Tambococha and Tiputini) 지역 개발로 향후 원유 생산량 확대가 예상됨.
- ITT 지역은 에콰도르 동쪽 아마존지역의 야수니(Yasuni) 국립공원에 위치하며, 2007년 이후 환경보호를 위해 개발이 금지되었으나, 재정확보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2013년 8월 개발이 추진됨.
- 또한 구리, 금, 은, 니켈 등 광물자원 역시 매장되어 있으며, 2013년 말 광업법이 개정되면서 광산개발이 확대가 예상됨.
- 2013년 개정된 광업법에서는 광산업 개발시 허가절차 간소화,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입찰과정 생략 등을 추진함.

□ 정부의 교육부문 공공지출로 높은 인적자본 수준 보유

- 에콰도르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을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교육부문 공공지출을 확대하여 인적자본 축적 정도가 높음.
- 2013-14년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지수(Competitiveness index)에서 에콰도르는 148개국 중 초등(64위), 중등(19위), 고등(30위)교육 등록률, 교육의 질적측면(18위)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함.

다. 정책성과

□ 관료 부패, 정책 불투명성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저조

- 에콰도르는 높은 석유 의존도 극복,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일부 산업에서 외국인의 단독투자 허용, 행정절차 단순화 등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.

- 다만,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, 만성적인 관료부패 등으로 순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GDP 대비 1% 이하로 저조한 수준임.

- 국제투명성기구(Transparency International)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(Corruption perceptions Index)에서 에콰도르는 177개국 중 102위로, 브라질(72위), 페루(83위), 콜롬비아(94위)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함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 ^e	2014 ^f
경 상 수 지	-1,627	-224	-279	-1,388	-2,392
경 상 수 지 / G D P	-2.3	-0.3	-0.3	-1.5	-2.4
상 품 수 지	-1,504	-160	37	-1,077	-1,425
수 출	18,137	23,083	24,569	24,963	27,511
수 입	19,641	23,243	24,532	26,040	28,936
외 환 보 유 액	1,435	1,664	1,080	2,545	2,051
총 외 채 잔 액	15,565	16,975	17,040	17,304	17,605
총 외 채 잔액 / G D P	23.0	21.8	20.1	19.3	18.7
D S R	21.9	17.9	15.2	14.1	13.2

자료: IMF, IIF, OECD, EIU.

□ 미국의 관세혜택 종료로 상품수지 적자 확대 전망

- 에콰도르는 중간재, 자본재, 연료 등을 주로 수입하며, 총수출 중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에 따라 상품수지가 민감하게 반응함.
- 2013년에는 에스메랄다스(Esmeraldas) 공장 가동중지에 대비한 연료(가솔린, 디젤, LPG 등)수입 확대로 상품수지가 11억 달러 적자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.
- 2014년에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가 예상되나, 연료수입 지속, 미국의 관세혜택 종료에 따른 직물수출 부진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14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.
- 미국은 안데안통상촉진법(ATPDEA)을 통해 콜롬비아, 에콰도르, 페루, 볼리비아의 일반 작물에 대해 특혜관세를 제공했으나, 2013년 말 에콰도르에 대해 동 혜택을 종료함.

□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 증가

- 에콰도르는 해외 근로자의 본금 송금액 등을 통한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.
- 2013년에는 외국인에 대한 배당소득 지출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와 함께 상품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1.5%였으나, 2014년에는 상품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되어 동 비율은 2.4%를 기록할 전망이다.

□ 외채상환부담 낮으나 쌍둥이 적자로 외환보유액 감소 전망

- 채무탕감과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한계로 GDP 대비 외채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19.3%에서 2014년 18.7%까지 축소될 전망이다. 또한 외채상환비율(D.S.R.) 역시 10%대로 외채상환부담이 낮음.
- 국제금융기구와 중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통해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3년 25억 달러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, 2014년에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보전으로 외환보유액이 20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.
- 한편,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3년 1.1개월로 추정되나, 2014년 0.8개월 수준까지 축소될 전망이다.

III. 정치·사회 동향

1. 정치안정

□ 꼬레아 대통령 3선 성공, 여당 과반의석 확보로 안정적 정국유지 가능

- 2013년 2월 대선에서 저소득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급진좌파 라파엘 꼬레아(Rafael Correa) 대통령이 56.7%의 지지율로 연임에 성공함.
- 꼬레아 대통령은 대통령 연임 허용, 권한 강화,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, 유휴 토지에 대한 몰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신헌법 제정을 통해 2009년 4월 대선에서도 압도적 지지율로 재임에 성공한 바 있음.
- 또한 총선에서 여당인 조국주권연합(Alianza Pais)이 100석(총137석)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토대를 마련함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현 대통령의 민생안정 정책으로 사회불안 경감

- 에콰도르는 지역, 인종, 이념, 소득격차에 따른 갈등과 행정부에 대한 권력집중, 광산 개발을 둘러싼 원주민의 반대 등 사회불안 요인이 상존함.
- 2010년 9월 경찰폭동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, 2012년에는 정부가 발표한 '아마존 대규모 광산 개발정책 및 유전 개발계획'에 대해 각 지역 대표가 수도인 키토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펼친 바 있음.
- 그러나 현 대통령의 강한 정책 추진력, 원자재 수출 호황에 따른 풍부한 재정을 기반으로 민생안정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있음.
- 정부의 소득, 가격 보조 등을 통해 에콰도르의 빈곤율은 2013년 25.5% 수준이며, 지니계수는 48.5임.

3. 국제관계

□ 남미공동시장(Mercosur) 가입 추진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

- 에콰도르는 안테스공동체(CAN) 회원국인 동시에 남미공동시장(MERCOSUR) 준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며, 2013년 6월에는 남미공동시장 정회원국 가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
○ 2012년 결성된 역내의 또 다른 경제 협력체인 태평양 동맹(Pacific Alliance)의 부상으로 남미공동시장은 적극적으로 회원국 확대에 나서고 있어 에콰도르의 가입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.

□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대항한 동맹 참여 등을 통해 역내 영향력 확대 추진

○ 에콰도르는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과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결성한 미주불리바르동맹(ALBA)의 회원국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망 후 3선에 성공한 궤레아 대통령이 차기 지역통합 리더로 지목되고 있음.

□ 안테안통상촉진법 수혜 종료 등으로 미국과의 갈등 확대

○ 미국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에콰도르 전체 수출액의 43.2%, 수입액의 27.5%를 차지하는 제1의 교역상대국임.

○ 그러나 2013년 6월 전 미CIA 요원 스노든의 망명 신청에 대해 미국 정부가 안테안통상촉진법 혜택 중지 등을 언급하자 에콰도르 정부가 동 혜택 포기를 선언하는 등 갈등이 확대되고 있음.

□ 원유를 담보로 한 중국 자금 의존도 증가

○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재원이 부족한 에콰도르에 원유를 담보로 한 중국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.

- 중국은 Coca-Codo Sinclair 수력발전소를 비롯한 정유소 건설, 구리광산 개발 등 에콰도르 내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채무재조정과 채무불이행 빈번

○ 에콰도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외채가 급증하여 1982년 외채위기를 겪었으며, 1980년대에도 국제금리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외채상황은 계속 악화됨.

○ 에콰도르는 IMF의 구조조정 차관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IMF의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외채상환 중단, 파리클럽 및 상업차관단과의 채무재조정을 반복함.

- 파리클럽은 8차례(1983년, 1985년, 1988년, 1989년, 1992년, 1994년, 2000년, 2003년)에 걸쳐 채무를 재조정한 바 있음.

○ 2008년 12월 에콰도르 정부는 양호한 경제상황, 낮은 외채비율에도 불구하고 32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함. 또한 2009년 3월 에도 글로벌 본드(2030년 만기)의 이자(1억 3,400만 달러) 지급을 거부함.

○ 한편, 2013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(ECA) 승인금액은 총 12.2억 달러(단기 6억 달러, 중장기 6.2억 달러)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3.1억 달러로 전체의 25%를 차지함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등급	종전 평가등급
OECD	7등급 (2013.10)	7등급 (2012.06)
S&P	B+ (2014.08)	B (2013.8)
Moody's	Caa1 (2012.09)	Caa2 (2011.02)
Fitch	B (2013.10)	B- (2012.10)

○ 주요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2008년 12월 디폴트 선언 이후 에콰도르에 대한 신용등급을 최저 수준으로 하향조정하였으나, 높은 경제성장률, 안정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으로 국제신인도가 개선되고 있음.

- 2013년 10월 Fitch, 2014년 8월 S&P는 동국의 신용등급을 각각 B-에서 B, B-에서 B+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바 있음.

□ 주요 ECA 지원태도

- 미국 EXIM: 공공부문에 대한 제한적인 단기/중기 인수 가능
- 영국 ECGD: 제3국 확인 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 가능, 제한적 중기 인수
- 독일 Hermes: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: 1962년 10월 5일(북한과는 미수교)

□ 주요협정: 경제기술협력협정(1983년),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(1983년), 어업협력협정(1984년), 문화협정(1985년),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(2003년)

□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<표 4> 한-에콰도르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대 에콰도르	2011	2012	2013	주요품목
수 출	887	857	920	자동차, 자동차부품, 합성수지
수 입	31	40	48	감각류, 동제품, 어육 및 어란
교 역 규 모	918	897	968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○ 2013년 대 에콰도르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(34.6%), 자동차부품(11.7%), 합성수지(9.0%)이며,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한 9.6억 달러를 기록함.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2012년 총수출의 0.2%에 불과했으나, 2013년에는 총수출의 7.4%까지 확대되어 상위 4위 수출품목임.

○ 2013년 12월 말 기준 대 에콰도르 직접투자(누계 기준)는 총 28건(신규법인수), 37.8백만 달러(투자금액)이며, 업종별로는 제조업(38%), 광업(18%), 도매 및 소매업(11%)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.

V. 종합의견

□ 에콰도르는 대선을 앞둔 대규모 공공지출에도 불구하고 최대 정유시설의 휴업으로 2013년 4.2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4년에도 동시설의 휴업이 지속되어 전년과 비슷한 4% 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됨.

□ 정부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 임금과 보조금 지급 확대로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.01%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, 2014년에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계획되어 있어 동 비율은 4%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.

□ 2013년 저소득층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한 코레아 대통령의 3선 성공, 여당의 국회 과반의석 차지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예상됨.

□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비중이 낮은 수준이나, 월평균수입액 대비 낮은 외환보유액 규모, 수 차례의 채무재조정과 채무불이행 경험, ECA 자금에 대한 높은 연체율 등 취약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임.

조사역 김지용 (☎02-3779-5716)
E-mail: jyk@koreaexim.go.kr